

## 기술 사회에서의 새로운 신화들에 대한 분석 -자크 엘룰의 기술 사상을 중심으로 \*

**An Anlaysia on the New Mythologies in the Technological Society  
- Around the Technological Thought of Jacques Ellul**

이 상 민 (Sang-Min Lee)\*\*

### ABSTRACT

Jacques Ellul criticizes new mythologies emerging in the modern technological society, especially those related to the technology. This is because the technology today is an autonomous process that cannot be controlled by humans and is a sacred world. According to Ellul, the various mythologies that exist in the modern technological society are history, science, state, politics, money, growth, progress, sports, advertising, mass media and information processing technology. The Christians liberated in Jesus Christ must cease to idolize such mythologies that alienate humans. Ellul presents 'awakening' as a solution to such problems in the modern technological society and as a special Christian act. By the way, the essential element for 'awakening' is to destroy the modern mythologies. Such 'awakening' results in two consequences. First, it is to recognize the 'incident' of Incarnation in which God intervened in the history and rediscover its meaning in the world. The 'incident' of Incarnation is contrary to the modern mythologies, and only from that 'incident' the Christians can rediscover the essential areas indispensable to the their thinking and lives. Second, it is to rediscover the boundary of the 'divine inviolability'. Intellectual inquiry should not go beyond the 'divine inviolability' because, through the mechanical means, it can subjugate, deny and trample the 'divine inviolability' beyond its own capability.

**Key words : Jacques Ellul, Jacques Ellul, Technological Thought, Technological Society, New Mythologies**

\* 2021년 2월 19일 접수, 3월 19일 최종수정, 3월 19일 게재확정

이 논문은 제37회 기독교학문연구회 연차 학술대회(2020년 10월 31일)에서 발표한 원고를 수정·보완한 것임

\*\* 서울국제고등학교(Seoul Global High School) 교사, 서울특별시 종로구 성균관로13길 40, 7890jt@gmail.com

## I. 서론

자크 엘뤼(Jacques Ellul 1912-1994)의 사상에서 핵심을 이루는 것은 바로 기술 사상으로, 그는 일생동안 기술 현상에 대해 분석한다. 그가 현대 사회에서 기술 현상을 분석하고 고찰하면서 기술 현상과 관련하여 집필한 저서는 『기술 혹은 시대의 쟁점』(*La Technique ou l'Enjeu du siècle*, Armand Colin, 1954) 『기술 체계』(*Le système technicien*, Calmann-Lévy, 1977) 『기술 담론의 허세』(*Le bluff technologique*, Paris: Hachette, 1988) 등 모두 3권이다. 1954년에 출간된 『기술 혹은 시대의 쟁점』은 총괄적인 분석 방법으로 ‘기술 사회’ 혹은 ‘기술 현상’을 전체적인 시각 속에서 파악하고 연구한 저서이다. 1977년에 출판된 『기술 체계』는 기술 사회 내부에서 기술을 ‘체계’로 간주하여 연구한 저서이다. 그런 기술 체계 속에서의 인간의 위상과 상황이라는 문제를 제기한 이 저서는 그의 사상의 요체를 담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1988년에 나온 『기술 담론의 허세』는 기술과 관련된 삼부작의 마침표가 되는 저서이다. 특히, 이 저서는 기술 사회와 관련된 거짓된 이데올로기를 문제 삼고 있다. 즉, 기술 사회가 인간에게 받아들여지는 것을 정당화하는 담론들, 곧 기술을 옹호하고 신성시하는 담론들을 비판한다.

기술과 관련된 그 세 권의 저서를 중심으로, ‘선전’을 주제로 한 저서인 『선전』(*Propagandes*, Paris: Armand Colin, 1962)과 『선전의 역사』(*Histoire de la propagande*, Paris: Presses Universitaires de France, collection «Que Sais-je?», 1967)는 기술 사회에서 인간을 개조하는 기술적 수단을 서술한다. ‘정치’를 주제로 한 저서인 『정치적 환상』(*L'Illusion politique*, Paris: Éditions Robert Laffont, 1965)은 기술 사회 속에서 정치가 무엇인지 보여준다. 특히, ‘혁명’을 주제로 한 저서인 『혁명에 대한 분석』(*Autopsie de la révolution*, Paris: Calmann-Lévy, 1969), 『혁명에서 반란으로』(*De la Révolution aux Révoltes*, Paris: Calmann-Lévy, 1972), 『혁명의 쇄신』(*Changer de Révolution*, L'Inéluctable prolétariat, Paris: Éditions du Seuil, 1982)은 기술 사회 속에서 가능한 혁명에 대해 질문을 제기한다. 따라서 엘뤼가 기술과 정치와 선전에 대한 고찰을 통해 기술 사회에 대해 행한 비판적 분석은 ‘혁명’을 다룬 이 세 저서에서 마무리된다.

최근에 와서 프랑스에서는 엘뤼의 기술 사상에 대한 연구가 활기를 띠고, 그의 사상과 관련된 학회와 심포지엄이 활발히 개최되고 있다. 그의 기술 사상이 사후에 프랑스에서 인정받고 있는 이유는 아마도 현시대에 심각하게 부각되는 다양한 문제 및 현상과 관련되어 있다. 전 세계적 금융 위기 같은 사회적 위기, 통제되지 않는 개발에 의한 환경 파괴의 위험, 온실가스 증가로 인한 이상 기후와 기후 재난,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원전사고 같은 핵 재난, 유전자변형 식품과 광우병, 동물 복제로부터 시작된 인간 복제의 가능성 등이다. 그러한 위기와 위험과 재난에 직면하여 해결책이 무엇인지 찾아보지만, 속 시원하게 그 해결책을 제시하는 사상가를 찾아볼 수 없는 실정이다. 그런 상황에서 기술을 중심축으로 하는 엘

릴의 사상을 돌아보니 그 해결의 실마리와 단서가 발견된 것이다.

장 뤽 포르케(Jean-Luc Porquet)에 따르면(Porquet, 2004; 5-6), 엘릴은 오늘날 대부분의 사상가보다 더 우리 시대를 명확히 밝혀준다. 엘릴은 분명히 점점 더 해체되고 복잡해지며 파악할 수 없는 이 세상에 대해 숨겨진 논리를 폭로한다는 것이다. 기후 온난화, 생물 다양성 붕괴, 환경오염, 에너지 자원 고갈, 물 부족, 열대 우림 소멸 같은 인간을 위협하는 전 세계적 환경 재난, 또한 광우병, 유전자변형 식품, 석면 공해, 핵폐기물, 사고위험 공장, 전파기지국, 알레르기의 급증, 동물 복제, 대유행 전염병 같은 반복되는 위기, 그리고 불특정 대중 대상의 돌발적 테러 등 이 모든 현상은 우리를 불안하게 한다. 그런데, 우리는 그 모든 현상에 대해 그것이 단지 기능장애나 혹은 역기능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더 심각하고 깊은 어떤 것과 관련된 것이라고 예감한다.

엘릴은 그 모든 현상들을 예견하면서 그 근본 원인으로 ‘기술’을 든다. 특히, 그는 그 혜택들이 끊임없이 과장되는 기술적 진보가 주체가 없는 과정이 되었다고 지적한다. 즉, 기술은 독자적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맹목적인 힘이 되고, 자체의 성공과 마찬가지로 자체의 실패도 함께 품으면서 자체의 원리에 따라 자가 증식한다. 기술은 인간을 해방시킨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논란의 여지가 없는 확고한 힘이 되어 버린다. 따라서 기술은 판단 받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모든 민주적 통제에서 벗어난다. 결국, 기술은 인간이 지닌 가장 소중하고 취약한 것인 ‘자유’라는 측면에서 인간을 위협한다. 특히, 기술은 자체의 특성들을 통해 중립적 실체가 더는 아니라, 신성한 힘을 부여받은 비인격적 권세가 됨으로써, 인간은 기술을 신뢰하고 숭배대상으로 삼는다. 본고에서는 엘릴의 그러한 기술 사상을 중심으로 현대 기술 사회에 새롭게 등장하는 새로운 신화들에 대해 분석해 보고자 한다.

## II. 기술 사회와 신화

### 1. 기술 사회에 대한 정의

엘릴은 우리 사회에 대해 내려지는 여러 정의를 분석한 후 그 정의들이 기술을 향한다고 주장한다(Ellul, 2004d: 13-22).

첫째, 레이몽 아롱(Raymond Aron)의 ‘산업 사회’라는 정의인데(Aron, 1986), 이 용어는 아주 일반적으로 사용되지만 이 용어는 적절치 않다. 즉, 서구 사회가 19세기에는 산업 사회가 되었지만, 산업 현상은 기술적인 두 요인인 기계의 증가와 생산의 조직화로 특징지어지기 때문에, 오늘날 여전히 중요한 산업 현상은 19세기의 산업 현상과 공통점이 없다. 그래서 엘릴은 ‘산업 사회’로부터 ‘기술 사회’로의 변천 및 이 둘 사이의 대립에 대해 논증하면서 현대 기술의 특징을 설명한다. 즉, 현대 기술은 수단 속으로

목표를 재통합하고, 노동의 기회를 없애며, 실제로 노동의 기회를 줄인다. 특히, 산업우선주의나 산업생산의 발전과 어긋나는 현대 기술 자체는 자동화, 화학 작용, 에너지 절약, 인공두뇌학의 적용, 정보처리 기술, 생물학적 개입, 핵에너지의 무제한 생산이라는 차원에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예전의 산업적 기계 사용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

둘째, 다니엘 벨(Daniel Bell)의 ‘후기 산업 사회’나 알랭 투렌(Alain Touraine)의 ‘진보된 산업 사회’ 같은 정의이다(Bell, 1974 ; Touraine, 1969). 이 정의들은 불명확하고 의미가 없고, ‘산업 사회’ 앞에 붙은 ‘후기’나 ‘진보된’ 같은 형용사들이 완전히 쓸모없을 뿐 아니라, 우리 사회를 전혀 규정하지 못한다. 그렇지만 벨이 규정한 서비스 산업 경제의 생성, 기술전문가 계층의 우위, 이론 서비스 산업의 중요성, 자율적 기술담론의 증가, 새로운 지적 기술 담론의 생성이라는 ‘후기 산업 사회’의 다섯 가지 특징은 기술과 바로 연결된다. 그 때문에, ‘서비스 산업 사회’ 혹은 ‘제3차 산업 사회’ 같은 정의에 있어, ‘서비스 산업’이라는 개념은 이 사회의 모든 형태를 포함하지 않고, 현재 현상들의 복잡성을 고려하지 않으며, 이 현상들의 가장 중요한 측면을 염두에 두지 않는다.

셋째, 장 보드리야르(Jean Baudrillard)의 ‘소비 사회’라는 표현이다(Baudrillard, 1970). 이 표현은 우리 사회의 모든 것을 포함하고 설명하는 핵심어가 아니며, 우리 사회는 소비에 의해서 만큼이나 노동이나 생산에 의해 특징지어진다. 물론, ‘소비 사회’라는 용어가 이 같이 아주 불충분하지만, ‘소비’ 속에서 기술적 요소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광고 기술은 소비를 유발하고, 기술에 힘입어 가능한 대량생산은 소비를 부추기며, 기술적 물품이 소비할 대상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소비 사회’는 모든 측면에서 다양한 기술에 의해 특징지어진다.

넷째, 앙리 르페브르(Henri Lefebvre)의 ‘관리 소비 관료 사회’라는 정의이다(Lefebvre, 1975). 물론, 이 표현이 우리 사회의 기능과 구조 중 어떤 것에 완전히 일치하지만, 조직과 소비와 심리적 활동 같은 우리 사회의 어떤 측면만을 받아들일 따름이지, 대중화와 생산 같은 중요한 다른 측면을 배제한다.

다섯째, 새로운 대중매체의 출현이 결정적인 사실이라는 마셜 맥루한(Marshall McLuhan)의 정의이다(McLuhan, 1964). 이 새로운 대중매체는 사회조직체를 변형시키고 각자의 사고방식과 존재방식을 변화시킨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기술적 매체인 새로운 매체는, 기술적 진보에 의해 생겨나서 기술적 진보를 동반하므로, 기술적 진보와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

여섯째, 우리 사회에서 모든 것이 구경거리가 되었다는 국제무정부주의자들이 지칭하는 ‘구경거리 사회’라는 표현이다(Dubord, 1967). 만일 ‘구경거리 사회’가 있다면 이는 기술화 때문에, 기술화에 힘입어, 기술화를 위해 그렇게 된 것이며, ‘구경거리 사회’는 기술의 발전에서 이상적인 틀과 유리한 환경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이, 우리 사회에 대한 가장 중요한 정의들에서 파악된 특징들을 설명하는 결정적 사실은 기술 현상이며, 제시된 그 모든 정의에서 기술 현상이 공통 요인으로 드러난다.

## 2. 신화의 역할과 기능

엘룰은 인간의 역사에는 목적도 의미도 없다고 규정한다. 더욱이 성서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언급 되는데, 요한계시록에서의 역사는 방향도, 정해진 노정도, 이유도 없이 네 마리의 말이 펼치는 광란의 경주로 묘사된다. 네 마리의 말은 각각 정치권력과 군사력, 경제력, 죽음 및 죽음의 원천과 관련되는 모든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la parole)을 나타낸다. 네 마리 말은 격렬하고 난폭하게 질주하면서 지상의 모든 곳을 누비고 다닌다(계 6: 2-8). 그런 광란의 경주들이 조합된 것이 바로 우리가 ‘역사’라고 부르는 것이다(Ellul, 1987: 24).

엘룰은 “신화는 합리성이 표명할 수 없는 것을 표현했다”(Ellul, 2003: 66)라고 하면서, 그러한 인간의 역사에서처럼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연계성을 발견할 수 없을 때, 인간은 상징적이고 신화적인 방식을 통해 어떤 의미를 부여한다고 밝힌다. 그러한 방식은 터무니없는 것이 아니라, 그와 반대로 놀라운 풍성함과 심오한 진실성을 지닌 풍요한 의미를 인간에게 제시한다. 왜냐하면 신화는 인간이 영원히, 총체적으로, 개인적으로 체험하는 것에 당연히 부여하는 의미를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실제로 총체적인 면에서 인간의 모험, 곧 인간의 역사에는 아무런 의미도 없지만, 인간은 거기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싶은 것이다. 이는 일관성을 위한 것이고, 허무나 혹은 부조리에 맞서 싸우기 위한 것인데, 부조리는 인간에게 허용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Ellul, 1987: 24-25). 따라서 엘룰에게 신화는 인간이 체험하는 것에 대해 그 의미를 해석하는 도구이다.

엘룰은 인간이 ‘겉모습’만 파악하여 믿으려 들고 ‘겉모습’ 속에서 살다가 죽는다는 것을 이 시대의 특징으로 든다. 이 시대와 문명 전체의 지식인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은 이 세상이 진정으로 형성하고 있는 것을 보기를 거부하고 세상이 드러내는 실제 상황을 인식하기를 거부한다는 것이다. 특히, 현대인은 대중매체나 광고나 선전이 전달하는 것만을 보고서 거기 나온 그대로를 진짜로 여길 뿐, 자신의 경험과 판단과 생각을 믿지 않는다. 그렇기에, 인간 자신의 삶과 생각이 되는 것은 바로 ‘겉모습’이다. 통신수단과 선전수단이 발달할수록 현대인은 정리되지 않고 확인되지 않은 채 끊임없이 밀려드는 뉴스와 이미지 속에 빠진다. 그런데, 현대인은 그 다양한 ‘사실들’을 이해하기 위한 논리적 연결과 설명이 필요하므로, 이 모든 ‘사실들’ 사이에 일관성을 요구한다. 엘룰은 거기서 비롯된 것이 ‘설명적 신화’라고 하면서, ‘설명적 신화’가 인간의 지적 체계 전체의 진정한 지주가 된다고 지적한다. 그런데 심각한 점은, 현대인은 자신에게 닥치는 일이나 자신이 하는 일이 이 ‘신화’가 주는 ‘설명’에 의존하기에, 현대인에게 이 ‘신화’ 외에 다른 지적 일관성의 수단이 없다는 것이다(Ellul, 1988b: 89-106).

## 3. 신화와 ‘신성한 것’에 대한 현대인의 재해석

엘룰에 따르면(Ellul, 2003: 201-202), 우리 시대에도 인간의 종교적 충동이나 혹은 종교적 욕구는 여전히 존재하고, 종교들은 예전과 마찬가지로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며, 세상은 늘 종교로 가득 차 있다.



그런데, 이는 현대인이 심하게 느끼는 고독에 관계되고, 현대 사회에서의 인간 상황에 대한 공포와 불안과 관계되며, 과학이 모든 것을 해결하지 못한다는 사실에 대한 보상심리와 관련된다. 그래서 엘월은 현대인이 겪는 포괄적인 경험 세 가지를 들면서, 그런 경험과 상황을 통해 현대인이 신화와 '신성한 것'과 '종교적인 것'에 뛰어든다고 지적한다(Elul, 2003: 311-313).

첫 번째 경험은 인간이 결코 경험하지 못한 놀랍고 흥분케 하는 모험인데, 사물들과 세계에 대한 인간의 지배는 거의 한계가 없다는 것이다. 즉, 인간은 궁극적인 물질을 탐구하고, 인간 뇌의 가능성을 무한히 확장시키며, 에너지 소비를 매일 늘리고, 생명의 근원에 도달하며, 죽음의 경계를 물려서게 한다.

그렇지만 그와 동시에, 같은 장소에서 인간은 또 다른 두 번째 경험을 하는데, 한계에 이른 잔혹함을 경험하는 것이다. 이는 인간을 당황하게 하는 '미래의 충격'일 뿐 아니라, 인간을 불안에 사로잡히게 하고 인간에게 깊은 충격을 주는 일이다. 즉, 자신의 조상과는 달리 현대인은 일상화된 살육과 테러, 히틀러의 유대인 학살, 핵폭탄에 의한 히로시마에서의 대량학살, 러시아의 강제노동수용소, 인도와 콩고와 비아프라와 쿠르드와 벵골에서의 대학살, 전면전, 일촉즉발의 분쟁지역 등 그 모든 것을 알고 목격한다.

현대인이 겪는 세 번째 포괄적인 경험은 현대인이 걸으로 보기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와 극복할 수 없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고 점점 더 확신한다는 것이다. 즉, 기아 문제, 인구과잉 문제, 오염 문제는 현대인 모두와 관련되는 엄청난 문제이면서, 현대인이 다른 해결책으로 그 해결책을 떠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문제이다. 그런 상황이 더욱 어려운 것은, 모든 것이 놀라울 정도로 빨리 변하기 때문이다. 또한 현대인이 어떤 여유도 거리 두기도 고찰 가능성도 허용하지 않는 정보의 홍수 속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현대인은 전통적인 토양에서 뿌리 뽑혀 기존의 모든 길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이다.

엘월은 현대인이 신화와 '신성한 것'에서 벗어나지 않았고 여태껏 볼 수 없을 정도로 종교적임을 보여주기 위해, 현대 세상에서의 세속화 이론이 잘못되어 있음을 지적한다. 즉, 현대 세상이 세속적이고 세속화된 세상, 무신론적이고 종교와 무관한 세상, 신성을 박탈당한 탈(脫)신화화된 세상이라는 것이 사회통념이 되었지만, 현대 세상의 실제 상황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현대인이 더는 신앙심을 갖지 않고 명백한 증거를 원하며 '종교적 신심(信心)'을 따르지 않고 이성을 따른다는 견해, 현대인에게 종교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더는 어떤 의미도 없다는 견해, 현대인이 신화들 속에서 표현되는 전통적 사고가 아닌 새로운 사고방식 속으로 들어왔고 초월적이지 않은 말만을 들을 수 있을 따름이라는 견해, 결국 종교의 시대는 끝났다는 견해는 현대인의 실상과는 다르다는 것이다. 그래서 엘월은 그런 견해들

1) “신화를 뜻하는 ‘미스(myth)’란 말은 그리스어 ‘뮈토스(mythos)’에서 유래했다. ‘뮈토스’는 논리적 언어인 ‘로고스(logos)’와 대립되는 말로서 신성하고 감성적인 언술이라는 의미이다. 즉, 원시인들이 직관적 감성으로 우주 자연의 기원을 설명하는 이야기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신화라는 것이다. 그러나 신화가 전승 집단의 규범으로 신성시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아무나 신화를 만들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신화는 신성성을 본질로 한다. 이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신화를 이야기한 존재가 신성해야 한다. 신성한 존재는 신이거나 인간 사회에서 신과 교통하는 존재인 사제자이다.”(“신화”, 한국민속대백과사전, Retrieved from <https://folkency.nfm.go.kr/kr/topic/detail/5377> (2020. 11. 10.)). 이와 같이, 신성성 혹은 ‘신성한 것’은 ‘신화’의 본질일 정도로 ‘신화’와 밀접히 연관되므로, ‘신성한 것’은 ‘신화’와 동의어는 아니더라도 ‘신화’와 거의 같은 의미 군(群)에 포함시킬 수 있다.

이 일반 종교나 '종교적 신심'과 관련되기보다 기독교, 기술, 과학 같은 문제와 관련된다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 현대인을 비(非)종교적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현대인은 기독교에 대한 이야기를 더는 듣기 원하지 않고, 교회는 현대 사회에 더는 파고들지 못해 대중의 지지를 얻지 못하며, 현대인은 과학과 기술에 몰두해 있기 때문이다. 결국, 현대인을 비(非)종교적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과학과 기술의 영향뿐만 아니라 기독교에 대한 현대인의 거부에서 비롯된다고 보아야 한다(Ellul, 2003: 35-39).

그런 관점에서, 엘룰은 현대인이 모든 것의 신성을 박탈했고 신성하지 않은 세계에 산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한다. 즉, 현대인이 신화 세계로부터 나왔고 신화와는 낯선 사고방식을 갖고 있으며 탈(脫)신화화되어 있기에, 성서와 같은 신화적인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그러한 주장은 이런 견해와도 연결된다. 즉, 현대인이 과학에 몰두해 있기에 신화를 믿지 않고, 현대인은 합리화된 동기를 따르며 기술에 열광하기에 신화적 정신 상태에서 빠져 나와 합리적이 되고, 현대인은 세상에 대한 과학적 설명을 믿기에 종교를 더는 믿지 않는다는 견해이다. 다시 말해, 현대 기술 사회는 경제적인 성장과 물질적 행복 추구에 전념하기 때문에, 현대 기술 사회는 신성한 세상이 더는 아니고, 신화적이고 초월적인 것을 배제한다는 견해이다. 엘룰은 현대인과 현대 기술 사회에 대한 그런 견해가 신화와 '신성한 것'은 시대에 뒤진 과거의 태도와 일치한다는 확신에서 비롯된다고 지적한다(Ellul, 2003: 71-80).

### III. 새로운 신화들과 그리스도인의 '자각'

#### 1. '신성한 것'으로서의 기술과 현대인의 근본 신화

엘룰에게 현대인은 중세의 인간만큼 종교적이며 '신성한 것'을 개입시키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다. 그러므로 현대인은 자신에게 '신성한 것'의 구실을 하는 것을 계속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 엘룰은 그러한 상황에서 오늘날 우리 주위에 엄청나게 늘어나는 '신성한 것'에 대해 설명한다. 특히, 오늘날의 '신성한 것'은 인간이 무질서하고 이해할 수 없으며 일관성 없는 세상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해석으로서 제시하는 명백한 질서이다. 오늘날의 '신성한 것'이 그러한 것이라면, 인간은 자신의 삶의 환경과 관련하여 '신성한 것'을 만들어낸다. 이제 인간이 '신성한 것'으로 파악하거나 혹은 느끼는 권세들의 영역과 장소가 되는 것은 사회이지만, 기술이 인간의 삶의 환경이 되었기 때문에 이는 기술화 된 사회이다. 결국, 자연과 우주와 전통적인 종교적 대상에 대한 신성 박탈은 기술로 인한 사회의 신성화를 수반한다. 신성 박탈의 요인이던 기술이 그와 동시에 새로운 '신성한 것'의 중심 요소가 된 것이다(Ellul, 2003: 103-107).

그래서 엘룰은 현대적이고 기술적이며 과학적인 현대 서구세계는 신성화된 세계라고 하면서, 현대 사회의 가장 중요한 신성한 요인으로서 기술을 든다. 현대인이 신성한 현상으로 깊이 느끼는 기술은 인간

이 범할 수 없는 것이고 완벽한 지고의 작품이므로, 기술에 대한 어떤 비판이든 격렬한 반발을 불러일으킨다. 다시 말해, 본질적으로 선하다고 여겨지는 기술은 인간을 구원하는 신이며, 기술에 대립하는 것은 가증스럽고 악마 같은 짓이라는 것이다. 특히, 기술전문가들은 기술에 대한 그런 숭배에 가장 심하게 사로잡혀 있는데, 그들에게 기술은 ‘신성한 것’이고 ‘신성한 것’의 영역에 속한다. 결국, 현재의 인간에게 미래를 보장해 주는 기술은 인간의 힘을 표현하기 때문에 신성하다는 것이다. 또한 기술 없이는 인간은 홀로 초라하고 험벗은 상태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기술은 신성하다는 것이다(Ellul, 2003: 112-118).

그와 같이, 인간이 기존에 가졌던 ‘신성한 것’에 대한 믿음이 기술에 의해 박탈됨으로써 기술은 예전의 ‘신성한 것’의 자리를 차지한다. 그런데, 기술이 ‘신성한 것’의 자리를 차지한 현대 기술 사회의 상황에서, 인간의 삶에 필수적 요소로 보이는 ‘신성한 것’에 대한 욕구가 그러한 기술을 통해 과연 충족되는 것인가는 문제가 제기된다. 그 문제와 관련하여, 엘룰은 기술을 옹호하고 신성시하는 기술 담론이 인간을 모든 것보다 우선하고 인간을 목적으로 삼는다는 소위 ‘인본주의적 담론’임을 자처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기술 담론이 내세우는 그런 ‘인본주의적 담론’에 따르면, 새로운 기술은 인간의 행복과 힘을 보장해 주며, 각각의 기술적 진보는 태초의 인류가 지닌 근본 욕구와 연결되어 있다. 그런 ‘인본주의적 담론’이 강조하는 바는 순수한 기술 세계에서는 모든 것이 인간을 위해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또한 기술의 발전은 인간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다. 즉, 모든 것은 인간을 위해 방향이 설정될 수밖에 없으며, 인간의 절대적 행복을 목표로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결국, 기술과 관련된 ‘인본주의적 담론’의 주장은 이렇게 요약된다. 즉, 인간의 행복을 위해 만들어진 기술 전체를 통해 인간이 자아를 실현하고 자신의 존재를 표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엘룰은 우리가 그러한 ‘인본주의적 담론’과 정반대되는 세상에 살고 있음을 강조한다. 즉, 기술은 인간에 개의치 않고 기술 자체에만 관심을 기울일 따름이며, 인간을 섬기는 것에 대해 어떠한 관심도 없다. 그렇지만 인간은 기술 담론이 내세우는 그런 ‘인본주의적 담론’에 현혹되어 ‘신성한 것’에 대한 욕구가 기술을 통해 충족되는 것 같은 환상과 착각 속에 살아간다(Ellul, 2004a: 243-253, 281).

한편, 엘룰은 신화가 주어진 문명들과 상호 관련되어 문명들의 깊은 경향을 나타낸다고 밝힌다. 신화는 문명 한가운데서 지속적으로 존재하는 인간에 대한 설명인 동시에, 문명의 발전 과정이나 문명의 위기상황에 인간 대중이 가담하는 조건으로서 나타난다는 것이다 따라서 신화는 포괄적이어야 하는데, 신화는 상황과 행동의 모든 요소를 포괄하므로, 신화를 벗어나서는 아무것도 존속하지 않는다. 또한 인간의 역사적 상황은 신화에 의존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세상에서의 인간의 활동 수단과 현실에 대한 인간의 활동 수단은 저절로 신화를 만들어내므로, 인간을 신화를 피할 수 없다. 엘룰은 오늘날 현대 기술 사회에서 나타나는 두 가지 주된 ‘근본 신화’로서 ‘역사’와 ‘과학’을 든다(Ellul, 2003: 148-161). 현대 기술 사회 저변에서의 깊은 흐름을 나타내는 ‘근본 신화’는 현대 기술 사회에서의 모든 집단 신화가 수



립되는 토대로서의 신화이다(Ellul, 2008a: 52).

첫 번째 주된 근본 신화인 역사는 현대인이 자신의 기원을 다시 파악하는 수단이고 자신이 근거를 두는 수단이다. 인간의 삶은 인간의 역사적 상황에 의해 정당화되고, 인간은 자신이 행하는 것 전체로부터 정당화된다. 따라서 인간의 유일한 소명은 역사가 여전히 가능하게 만드는 것인데, 그런 점이 바로 신화의 기능이다. 두 번째 주된 근본 신화인 과학은 그 내용과 원리와 목적으로서 진리를 담고 있으며 궁극적 진리를 드러낸다고 여겨지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과학의 보편적 능력에 대한 그런 절대적 확신은 과학이 인간의 운명을 좌우한다는 믿음에 연결된다. 그리하여 인간에게 기원을 밝혀주고, 인간의 현재를 정당화하며, 인간에게 미래를 보장해주는 것은 바로 과학이 된다. 이와 같이, 과학이라는 신화는 현대 인류의 신화가 되고 보편적 기준이 된다<sup>2</sup>.

현대 사회에는 ‘역사’와 ‘과학’이라는 주된 근본 신화 외에도 ‘진보’, ‘국가’ 등과 같은 대표적인 근본 신화가 있고, 민족주의, 민주주의, 사회주의 등과 같은 이데올로기가 있다. 엘룰은 그런 신화와 이데올로기의 근본적인 차이점을 네 가지로 제시한다. 첫째, 모든 사회에는 신화가 있었지만 이데올로기가 늘 있는 것은 아니다. 둘째, 신화는 이데올로기보다 인간의 영혼 속에 훨씬 더 깊이 뿌리박고 있고 더 지속적일 뿐 아니라, 인간의 상황과 세상에 대한 근본적인 이미지를 인간에게 제시한다. 셋째, 신화는 이데올로기보다 더 적극적이며, 인간에게 활동을 유발시키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 넷째, 이데올로기가 수동적인 반면, 신화는 인간을 수동적으로 내버려 두지 않으면서 무언가를 실현하도록 인간을 부추긴다. 결국, 그 신화들은 인간 문명을 이끌어가는 진정한 토대이고, 인간이 살고 있는 집단적이고 보편적인 문명의 존재 자체를 나타낸다(Ellul, 2003: 171).

2) 과학이 신화의 성격을 벗어날 수 없다는 점은 바이제커(Weizsackers)의 이론을 통해 과학과 신화와의 관계를 조명한 연구에서도 드러난다(송병옥, 1995: 145-150). 본래의 자연이란 ‘신들의 지배 밑에 있는 인간’을 말한다. 따라서 자연 그 자체는 신화적으로 표현된다. 또한 자연은 기독교가 있기 전에 현존하는 삶의 형식과 인간 영혼에서의 일종의 힘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이전의 고대의 옛 문화에서 자연은 다른 개념, 곧 기독교의 유일신이 아닌 신들이나 혹은 자연력으로 표현될 수밖에 없다. 현대인에게도 신화적인 힘이 삶 자체의 근원적인 힘으로서 현대인을 실제로 지배한다면 자연이란 세속화된 실체가 아니라 여전히 신화적인 힘의 한 표현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세상이 신화에서 벗어남으로써 인간이 해방된다는 것은 인간을 해방시킨 ‘사랑의 신’, 곧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다. 즉, 인간이 ‘사랑의 신’을 믿는다는 것은 다른 신들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므로 자유는 ‘사랑의 신’과의 관계를 가질 경우에만 가능하며, 이 경우에만 인간은 신화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 그런 해방을 통해 ‘신들의 지배 밑에 있는 인간’으로 정의된 ‘자연’을 새로운 시각으로 볼 수 있게 된다. 자연은 이제 신들의 지배 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신’의 피조물로서 이해된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신’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자연과학의 대상으로서 자연을 바라본다면, 자연과학은 원리적으로 또 다른 의미의 신화의 속성을 벗어날 수 없다. 자연과학의 그런 신화적 속성은 근대과학의 시조 갈릴레이의 자연관에서도 발견된다. 갈릴레이는 인간이 가장 확신할 수 있는 실재에 기초하여 근대과학의 기초를 다지기는 하지만 이는 신화의 성격을 벗어날 수 없었다. 다시 말해, 근대의 자연과학은 그 나름의 역사적 신화를 갖고 있는데, 이는 갈릴레이에 관한 신화이다. 그 신화는 갈릴레이가 인간이 세상을 경험하는 대로 이를 서술함으로써 과학의 길을 닦았다는 것이다. 특히, 갈릴레이는 현실적인 현상들의 복잡성을 개별적 요소로 쪼개는 수학적 분석으로의 길을 여는데, 과학적 실험은 질문을 제기하고 답할 수 있는 수학적 이론을 통해 수행된다. 그리하여 주어진 자연은 조종 가능한 ‘실재’로 전환된다. 결국, ‘사랑의 신’을 배제하고서도 자연을 이해할 수 있다는 믿음이 갈릴레이의 신화이며, 이는 과학이 신화의 속성을 벗어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 2. 새로운 신화들에 대한 분석

현대인이 '신성한 것'에서 아직 벗어나지 않았기에 현대 기술 사회에는 다양한 '세속 종교'가 존재한다. 그런 '세속 종교'에는 국가, 정치, 돈, 성장과 진보, 스포츠, 광고와 대중매체, 정보처리기술처럼 인간을 소외시키는 신화들이 존재한다. 엘룰은 현대 기술 사회에 등장하는 그러한 새로운 신화들에 대해 차례로 분석한다.

첫 번째 신화인 '국가'는 두 번째 신화인 '정치'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역사적으로 마르크스주의, 레닌주의, 나치주의, 마오쩌둥 사상 등을 '정치적 세속 종교'로 규정된다. 그런데, 지금 목격되는 변화는 그런 종교들이 퇴조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 특성을 띤 모든 정치 활동 형태가 확장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에서의 종교적 긴장은 낮아지는 동시에, 자유주의 민주주의의 국가,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국가, 자본주의 민주주의의 국가에서의 모든 정치 활동은 신성화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일반화된 '정치 종교'는 국가가 신성화되어 있음을 드러내며, 현대 시민들의 정치 행위는 국가 속에 존재하는 '신성한 것'을 표현한다(Ellul, 2003: 303-315).

두 번째 신화인 '정치'의 신화적 측면은 현대인의 '정치화'와 관련된다. 오늘날 모든 문제가 정치의 영역 속에 포함되고, 그런 정치화 현상의 가장 중요한 과정과 매개체는 국가의 성장이다. 따라서 현대인의 '정치화'는 모든 것을 정치적 용어로 생각하고, 모든 것을 '정치'라는 단어로 덮어버리며, 모든 것을 국가의 수중 속에 넣어버리는 것이다. 또한 '정치화'는 매사에 국가의 도움을 요청하며, 개인의 문제들을 집단으로 넘겨버리고, 정치가 각자의 수준에 있으며 각자는 정치에 적합하다고 믿는 것이다. 특히, 오늘날 선과 악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사용되는 것은 더는 가치들이 아니다. 따라서 '정치적인 것'이 탁월한 가치가 되고, '정치적인 것'과 관련하여 다른 가치들이 정돈된다. 결국, 정치는 '종교적 신심'으로 표현되고, 궁극적 진리를 드러내며, 선과 악을 구분하는 근거가 된다(Ellul, 2004c: 35-55).

세 번째 신화인 '돈'과 관련된 문제는 자본주의가 개인의 삶과 집단적인 삶 전체를 점차 '돈'에 종속시킨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소유'를 위해 '존재'가 사라진 것이 자본주의 체제의 결과 중 하나이다. 하지만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사이의 차이는 거의 중요성이 없을 정도로 점점 더 줄어들고, 자본주의의 국가와 사회주의의 국가에서의 돈에 대한 태도는 별다른 차이가 없다(Ellul, 1979: 20-28). 데이비드 길(David Gill)은 그 체제가 다를지라도 어떤 국가에서든 돈의 승리를 것처럼 예견한 엘룰의 분석을 돈이 전부가 된 현대 기술 사회의 상황에 적용한다. 돈은 사람들의 경외심과 숭배를 불러일으키고, 사람들의 관심과 욕구의 중심을 차지하며, 사람들에게 의미와 가치의 원천 구실을 한다는 것이다. 그와 같이, 돈은 사람들의 삶에서 '맘몬'(Mammon)이라는 신의 속성을 취하는 경향이 있기에, 예수 그리스도는 돈에 대해 경고한다. 돈은 '영적 권세'로서 활동한다는 것이다. 특히, 세상만사와 모든 관계를 돈으로 환산하고 상품화하는 것은, 거기에 연루된 모든 사람의 인간성을 반드시 말살한다. 또한 이를 통해, 단순히 돈으로만 측정될 수 없는 가치와 현실에 대한 판단력이 마비된다(Gill, 2014: 117-120).

네 번째 신화인 ‘성장과 진보’는 그 신화적 특성을 이렇게 드러낸다. 우선, 기술을 통해 모든 것이 가능해진다면 기술 자체는 절대적 필연성이 되고, 그런 기술은 현대인에게 숙명과 운명이 되어버린다. 그리하여 현대인은 기술을 벗어나지 못하고, 모든 분야와 활동과 현실은 기술에 의해 장악된다. 더욱이, 기술의 힘이 미치는 범위를 벗어난 어떤 종류의 영역도 분야도 더는 없다. 기술은 그 자체로 ‘자기원인’(自己原因)<sup>3)</sup>이라는 것이다. 그리하여 “진보는 멈추어지지 않는다.”는 표현은 그러한 현상들에 대한 모든 고찰에서 절대적인 것이 된다. 따라서 그것에 맞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인간이 단지 따라야 하는 어떤 것이 있다면, 이는 바로 기술적 성장이다. 왜냐하면 현대 기술 사회에서의 진보는 그러한 기술적 성장으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결국, 기술적 성장으로 대표되는 ‘성장’과 거기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진보’는 현대인의 새로운 신화가 된다(Ellul, 2004a: 365-404).

다섯 번째 신화로서 ‘스포츠’는 현대인의 주의를 돌리고 분산시키는 엄청난 사회적 마법이다. 기술은 스포츠에서 이중적으로 작용한다. 우선, 기술은 스포츠의 실행방식을 변모시키면서 스포츠 자체에서 작용한다. 다음으로, 기술은 스포츠를 텔레비전과 다양한 이미지의 이상적인 볼거리로 만들면서 작용하는데, 이를 통해 스포츠는 변화한다. 스포츠 경기자는 자신의 기술을 향상시킴으로써 끊임없이 기록을 높인다. 끊임없이 더 뛰어난 결과에 도달하려고 하는 한, 그런 기술은 점점 더 까다로워지는 동시에 삶 전체를 망라한다. 그래서 스포츠는 프로 스포츠로 귀결되고 만다. 시합이나 혹은 경기가 단지 놀이에 해당한다면 극도의 기술을 과도하게 적용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 기술 담론을 통해 스포츠는 엄청난 구경거리로 변모하고, 챔피언이나 운동경기 스타처럼 경기장에서의 신(神)이 만들어진다(Ellul, 2004a: 654-663).

여섯 번째 신화인 ‘광고와 대중매체’에 의한 오락, 정치 선전, 인간관계나 홍보, 이 모든 것에는 인간을 기술에 적응시킨다는 유일한 기능이 있다. 그런데, 그 영향은 학교나 직업의 영향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다. 그것들은 인간에게 심리적 만족과 동기를 제공한다. 그런 심리적 만족과 동기는 인간으로 하여금 기술 사회에서 살며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게 한다. 그 때문에, 인간은 기술 사회 속에서 자발적으로 살아간다. 특히, 광고나 혹은 오락은 기술 사회에 대한 신격화된 이미지를 인간에게 제시한다. 오늘날 인간은 객체인 기술과 관련하여 독립적인 주체가 아니다. 오늘날 기술을 사용하는 인간은 바로 그 때문에 기술을 섬기는 존재이다. 결국, 기술을 섬기는 인간만이 진정으로 기술을 사용할 수 있다(Ellul, 2004d: 319-322, 334).

일곱 번째 신화로서 ‘정보처리기술’은 자동업무처리, 텔레마티크<sup>4)</sup>, 로봇 공학, 자동화 생산이라는 분

3) ‘자기 원인’(Causa sui). 이 용어는 스킨라 철학에서 비롯되었는데, 스킨노자의 철학에 의해 잘 알려진 용어이다. 대개 존재하는 것이 그 자체 이외의 어떤 것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자체 스스로가 존재의 원인으로 되는 것, 다시 말하면 그 자체의 본질에 존재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요컨대 자기가 자기 존재의 원인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스킨라 철학에 따르면, 그와 같은 것은 신(神)이다(철학사전편찬위원회, 2009: 765).

야로 나누어진다. 컴퓨터의 무한한 가능성은 회계와 주문과 정보를 위한 모든 세대의 설비, 그리고 업무 실행을 위한 모든 사무실과 작업장의 설비로 나타난다. 또한 생산성을 개선하기 위한 보편적 정보 업무의 자동화, 경제성장률의 향상, 정보처리기술을 통한 학교 교육 수준의 개선, 의료 정보화를 통한 건강 수준의 개선, 공해 비율의 감소 등 이 모든 것은 컴퓨터의 환상적이고 완벽한 발전에 힘입어 가능하다. 그래서 정보처리기술은 현대 기술 사회 전체를 관통하는 큰 흐름으로서 일종의 구원의 존재, 곧 신적인 존재가 된다(Ellul, 2004a: 495-518).

그럼에도 국가, 정치, 돈, 성장, 진보, 스포츠, 광고, 대중매체, 정보처리기술 같은 현대 기술 사회의 새로운 신화들에는 중요한 기능이 있다. 즉, 인간이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기술 사회에서, 그 신화들은 인간으로 하여금 어려운 상황을 감당해낼 수 있게 한다. 따라서 그 신화들에서 근본적으로 신성을 박탈함으로써 그 신화들을 없앴다면, 엄청난 대다수의 사람을 광기나 혹은 자살로 몰아넣게 될 것이다(Ellul, 2003: 315-316). 그와 같이, 현대 기술 사회에 등장하는 새로운 신화들은 현대인이 겪는 어려움을 극복하는 해결책으로 제시되거나 광기를 막아주는 기능과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그 신화들이 수행하는 그런 기능과 역할을 통해 다음 같은 문제가 반드시 수반된다.

우선, 그 새로운 신화들을 통해 생겨나는 문제는 엘뤼이 제시하는 ‘신성한 것’의 기능과 관련된다. 엘뤼에 따르면(Ellul, 2003: 80-89), ‘신성한 것’은 의미를 부여하는 주체로서 공간 속에서 어떤 행동 질서를 규정한다. 그 질서에 힘입어 인간은 완전히 일관성 있는 의미들을 받아들인다. 또한 ‘신성한 것’에는 개인을 집단 속에 통합시키는 기능이 있다. ‘신성한 것’이 집단적일 때만이, 또한 ‘신성한 것’이 공동으로 받아들여지고 체험될 때만이 ‘신성한 것’은 존재한다. 인간은 ‘신성한 것’ 속에 편입됨으로써 집단의 모든 행동을 받아들이고 떠맡게 된다. 특히, 현대인은 정리되지 않은 채 끊임없이 밀려드는 정보의 홍수에 빠져 있다. 그런 현대인에게는 그 다양한 정보를 이해하기 위한 논리적 연결과 설명이 필요하다. 그렇기에, 현대인은 그 모든 정보 사이에 일관성 있는 의미를 요구한다. 따라서 그 새로운 신화들을 통해, 현대인은 자신의 자유와 자율성을 상실한 채 어떤 행동 질서에 반드시 종속될 수밖에 없으며, 집단 속에 여지없이 통합되어 집단의 모든 행동을 비판없이 받아들이게 된다.

그 신화들을 통해 생겨나는 또 다른 문제는 현대인이 그런 신화들에 매혹되어 그 신화들을 우상처럼 숭배한다는 것이다. 즉, 현대인은 자신에게 절대적인 힘과 무한한 자유를 줄 것 같은 기술이라는 엄청난 도구에 매혹당하고 사로잡혀 있다. 인간은 “자신이 행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왜 행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질 수 없기 때문에, 인간 모두 일종의 최면상태에서 살고 있다. 엘뤼는 그런 질문을 던지지 않는 것은 인간의 자유가 순전히 허구임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Ellul, 1988a: v-xi).

4) 텔레마티크 *télématique*. 통신과 컴퓨터에 의한 정보처리의 융합을 가리키는 용어이다.

### 3. 문제 해결책으로서의 그리스도인의 ‘자각’

엘룰은 그리스도인이 ‘기독교적인 것’으로서 택하는 그리스도인의 수많은 태도와 견해 표명이 단지 그리스도인의 세속화를 통해 생겨난 산물일 따름이라고 지적한다. 그런데, 이를 통해 그리스도인의 사고는 의도적이든 혹은 비의도적이든 간에 세상의 사고에 적응하게 된다. 그래서 엘룰은 기독교적 입장과 동기에서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적응하려 할 때 일어나는 위험성을 경고한다. 즉, 그리스도인을 둘러싸고 있는 세상에 적응한다는 견해는 성서적 가르침이 절대 아니라 바로 세상의 행동 지침이다. 하지만 세상에 대한 적응이라는 행동 지침은 진보에 대한 집단적 신뢰에 연결되어 있다. 거기서 그리스도인은 성서에 어떠한 근거도 두지 않는 현대의 신화와 직면한다(Ellul, 1963: 55).

그와 같이, 진보에 대한 집단적 신뢰로 가득 차 있고 과학과 기술이 눈부신 성공을 거두는 상황에서, 그리스도인도 세상의 인간이기에 그런 열광적 분위기에 맞서지 못하고 그렇게 앞으로 나아가는 데 참여하고 싶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엘룰은 기독교적 입장과 동기에서 세상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적응을 정당화하거나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삶을 세상에 적응시키는 것은 잘못된 왜곡이라고 비판한다.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인의 의무로서 ‘자각’을 제시하는데, ‘자각’은 세상을 그 실재 가운데서 이해하는 것이다. 이는 ‘겉모습’과 ‘정보를 위한 정보’에 대한 거부이고, 인간에게 위안을 주는 ‘진보’라는 환상에 대한 거부이며, 역사의 숙명에 따라 상황이 개선되고 인간이 회복된다는 환상에 대한 거부이다. 그는 그런 ‘자각’에 필요한 요소로서 현대의 신화들을 파괴하는 것을 제시한다. 그리고 그는 그리스도인의 특별한 행위로서 ‘자각’이 현대 기술 사회에서의 새로운 신화들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하면서, 그리스도인이 해야 하는 유일한 행위이면서 끊임없이 새롭게 변하는 행위인 ‘자각’에서 비롯되는 결과들을 제시한다(Ellul, 1988b: 107-113).

첫째, 세상에서 성육신이라는 ‘사건’을 재인식하고 그 의미를 재발견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건’은 살아 있는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 있는 하나님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인데, 하나님이 역사의 흐름 속에 개입한 것이다. 특히, 그리스도인은 ‘사건’을 통해 개인적 결단에 이르기에, 그 자체에 의미가 있는 ‘사건’은 현대의 신화들과도 반대된다. 오직 거기로부터 그리스도인은 생각과 삶에 반드시 필요한 영역을 재발견할 수 있는데, 이 영역이 바로 ‘현재의 사건’이다. 오로지 거기서 출발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삶에 대한 의미와 하나님이 창조한 관계에 대한 의미를 재발견하게 할 수 있다(Ellul, 1988b: 116-118).

둘째, ‘신성불가침의 것’<sup>5)</sup>의 경계를 재발견하는 것이다. ‘지적 탐구’가 기술에 예속되어 버린 문제의 해

5) 여기서 ‘신성불가침의 것’이란 인간이 만든 현대의 신화들처럼 인간에 의해 신성화된 세계나 영역이 아니라, ‘초월자’나 ‘전적 타자’로서의 하나님과 관련된 세계나 영역으로 볼 수 있다. 엘룰에게 ‘세속적인 것’과 ‘신성불가침의 것’이라는 두 영역은 ‘현실’과 ‘진리’라는 표현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엘룰은 기술적 지배권에 연결된 현대 기술 사회의 주된 경향이 ‘현실’과 ‘진리’를 동일시하는 것, 다시 말해, 인간으로 하여금 ‘현실’을 ‘진리’라고 믿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확인할 수 있는 것에 해당하는 ‘현실’은 나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이면서, ‘지각’(視覺)이라는 수단을 통해 내가 감지하는 세상이다. 반면, ‘진리’는 인간의 궁극적인 종착지와 관련되고, 인간 삶의 의미와 방향과 관련된다. 그런데, 기술 사회는 확인할 수 있는 것 너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인간을 설득하려 든다는 것이다(Ellul, 1981: 32).



결책은, '세속적인 것'과 '신성불가침의 것'이라는 두 영역이 있음을 '지적 탐구'를 통해 재인식하고 두 영역 사이에 경계를 발견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발견에는 '지적 탐구'가 '신성불가침의 것'의 경계까지 나아갈 수 있으나, '신성불가침의 것' 너머로 가는 것은 아님이 전제되어야 한다. '지적 탐구'는 자체의 역량 너머에 있는 '신성불가침의 것'을 기계적 수단을 통해 예측시키고 부정할 수 있으며 짓밟을 수 있다. 그 때문에, '신성불가침의 것' 안으로 들어갈 위험이 있을 때 의도적으로 멈추는 것, 이것이 '지적 탐구'의 기능 중 하나가 되어야 한다. '지적 탐구'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해서 무엇이든 하지 말아야 하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시도하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sup>4</sup> 그런데, 이는 '지적 탐구'보다 뛰어난 외부의 판단 기준이 있음을 전제로 한다. '지적 탐구'의 힘이 미치는 범위를 벗어난 분야나 혹은 기술적인 수단의 활동 범위를 벗어난 분야가 남아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지적 탐구'가 진정한 힘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Elul, 1988b: 118-121).

## IV. 결론

엘룰은 현대인이 신화와 '신성한 것'에서 벗어나지 않았고 여태껏 볼 수 없을 정도로 종교적임을 보여 주기 위해, 현대 세상에서의 세속화 이론이 잘못되어 있음을 지적한다. 또한 현대인이 모든 것의 신성을 박탈했고 신성하지 않은 세계에 산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한다. 현대인이 신화 세계로부터 나왔고 신화와는 낯선 사고방식을 갖고 있으며 탈(脫)신화화되어 있기에, 성서와 같은 신화적인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 반박한 것이다. 그와 같이, 엘룰에게 현대인은 중세의 인간만큼 종교적이며 '신성한 것'을 개입시키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다. 그러므로 현대인은 자신에게 '신성한 것'의 구실을 하는 것을 계속 만들어낼 수밖에 없으며, 그러한 상황에서 오늘날 우리 주위에 '신성한 것'은 엄청나게 늘어난다. 그래서 엘룰은 현대적이고 기술적이며 과학적인 현대 서구세계는 신성화된 세계라고 하면서, 현대 사회의 가장 중요한 신성한 요인으로서 기술을 든다. 그와 같이, 인간이 기존에 가졌던 '신성한 것'에 대한 믿음이 기술에 의해 박탈됨으로써 기술은 예전의 '신성한 것'의 자리를 차지한다.

신화는 주어진 문명들과 상호 관련되어 문명들의 깊은 경향을 나타낸다. 또한 신화는 문명 한가운데

4) 지적 탐구가 '신성불가침의 것'의 경계를 넘어가는 대표적인 사례로는 유전공학의 일탈과 '밀실 생명공학'에서 비롯된 문제가 있다. 특히, 인류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그런 기고만장한 연구에 대해 최소한의 제한도 둘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 문제가 된다. 왜냐하면 '신성불가침의 것'의 경계를 넘어 "이루어질 수 있는 모든 것은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선언하는 기술 문명의 근본 법칙이 거기서 발견되기 때문이다. 2008년 영국에서 현재의 '인간생식배아 법안'이 통과된다. 그 이후, 배아 생식과 배아 연구에 대한 의료 지원을 받고 있는 영국 최고 기관의 정식 허가를 받아, 155개의 '인간 동물' 잡종 배아의 생산이 이루어진다. 달리 말하면, 동물의 난자와 인간의 정자로부터 잡종을 생산하는 것이다. 또한 인간의 세포가 미리 적출된 동물의 난자에 이식되는 경우 '세포질체잡종'(細胞質體雜種)이 된다. 그리고 인간이나 동물의 배아나 혹은 세포가 서로 융합되는 경우 '키메라'가 된다. 그 때문에, 그런 종류의 연구, 특히 영장류의 뇌 속에 이식된 인간의 줄기세포 실험에는 더 주의 깊은 관리가 요구된다(Barrientos-Parra, 2014: 150-153).

서 지속적으로 존재하는 인간에 대한 설명인 동시에, 문명의 발전 과정이나 문명의 위기상황에 인간 대중이 가담하는 조건으로서 나타난다. 것처럼 신화는 상황과 행동의 모든 요소를 포괄하므로, 신화를 벗어나서는 아무것도 존속하지 않는다. 더욱이, 인간의 역사적 상황은 신화에 의존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세상에서의 인간의 활동 수단과 현실에 대한 인간의 활동 수단은 저절로 신화를 만들어내므로, 인간을 신화를 피할 수 없다. 그러한 관점에서, 엘뤼는 오늘날 현대 기술 사회에서 새롭게 나타나는 모든 신화의 토대가 되는 두 가지 ‘근본 신화’로서 ‘역사’와 ‘과학’을 든다.

엘뤼는 현대 기술 사회에서 등장하는 새로운 신화들, 특히 기술과 관련된 신화들을 비판한다. 왜냐하면 오늘날 기술은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자율적인 과정이며 신성화된 세계이기 때문이다. 특히, 현대인은 ‘신성한 것’에서 아직 벗어나지 않았기에 현대 기술 사회에는 다양한 ‘세속 종교’가 존재한다. 그런 ‘세속 종교’에는 국가, 정치, 돈, 성장과 진보, 스포츠, 광고와 대중매체, 정보처리기술처럼 인간을 소외시키는 신화들이 새롭게 등장한다. 그는 현대 기술 사회에 나타나는 그러한 신화들에 대해 차례로 분석하면서, 그 신화들을 통해 생겨나는 문제를 지적한다. 즉, 현대인이 그 신화들에 매혹되어 그 신화들을 우상처럼 숭배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현대인은 자신에게 절대적인 힘과 무한한 자유를 줄 것 같은 기술이라는 엄청난 도구에 매혹당하고 사로잡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방된 그리스도인은 인간을 소외시키는 그런 신화들을 우상처럼 숭배하기를 그만두어야 한다.

엘뤼는 현대 기술 사회에서의 새로운 신화들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자 그리스도인의 특별한 행위와 의무로서 ‘자각’을 제시한다. 그런 ‘자각’에 필수적인 요소는 현대의 신화들을 파괴하는 것인데, ‘자각’으로 두 가지 결과가 나온다. 첫째, 하나님이 역사의 흐름에 개입한 성육신이라는 ‘사건’을 세상에서 재인식하고 그 의미를 재발견하는 것이다. 성육신이라는 ‘사건’은 현대의 신화들과 반대되며, 오직 거기로부터 그리스도인은 생각과 삶에 반드시 필요한 영역을 재발견할 수 있다. 둘째, ‘신성불가침의 것’의 경계를 재발견하는 것이다. ‘지적 탐구’는 자체의 역량 너머에 있는 ‘신성불가침의 것’을 기계적 수단을 통해 예측시키고 부정할 수 있으며 짓밟을 수 있기에 ‘신성불가침의 것’ 너머로 가지 말아야 한다.

현대인은 사물인터넷, 스마트폰, 블록체인, 인공지능, 빅 데이터, 로봇공학 기술로 대표되는 기술 문명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다. 인간은 무엇이 자신을 통제하고 조종하는지 모른 채 체계와 조직에 순응해 살아가면서, 그 거대한 체계를 구성하는 한 부품으로서 체계가 잘 작동하도록 자신의 기능을 수행할 따름이다. 따라서 엘뤼의 기술 사상을 토대로 신성화된 기술을 비롯해 현대 기술 사회에서 생겨난 새로운 신화들에 대해 자각하고 그 신화들에 대해 비판적 거리를 둔다면, 기술 문명 속에 사로잡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인간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기술 사회에서 인간 소외의 절정은 기술에 대한 어떠한 거리 유지이든 가로막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신성한 것’이 오히려 신성을 박탈하는 대상인 기술에 전이된다는 점에 기인한다. 그 때문에, 엘뤼는 “우리를 굴종시키는 것은 기술이 아니라 기술에 전이된 신성함이다.”(Ellul, 2003: 316)라는 표현을

쓴다. 따라서 신앙과 소망을 통해 기술 사회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은 그런 신앙과 소망을 통해 그런 신화들을 우상처럼 숭배하기를 그만두어야 한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방된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는 모든 기술을 사용할 수 있지만, 그 기술들에 대해 비판적 거리를 두면서 그렇게 해야 하고, 그 기술들에 더는 매혹당하지도 종속되지도 말아야 한다. 결국, 인간을 예측시키는 것은 기술도 국가도 아니라, 인간에게서 비판 기능 전체를 없애는 기술이나 국가에 대한 숭배이다(Ellul, 2003: 316-318).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기술 체계 밖에 존재하고 닫힌 세상에 돌파구를 열 수 있는 초월적인 하나님과 하나님의 계시에 의거하기 때문에, 기술적 지배에 저항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해방이야말로 인간이 자신의 소외로부터 해방되는 것이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은 인간을 진정한 자유로 이끌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이다. 그러므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기술의 신성함을 더는 숭배하지 않고 기술의 신성함을 떨어뜨리면서, 기술이라는 도구를 섬기는 대신 그 도구를 인간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해방되도록 되어 있고, 기술 사회의 모든 우상에 대해 그 신성함을 떨어뜨리는 길로 들어가게 되어 있으며, 자신의 삶의 방식을 통해 모든 절망을 넘어서는 소망을 증언하기로 되어 있다. 엘룰이 언급하듯이(Ellul, 2004b: 257), 그리스도인은 개인적인 혹은 사회적인 혹은 도덕적인 맥락에 따라서 뿐만 아니라, 종말론적 실재에 따라 자신의 행위와 결단을 선택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오직 그런 선택을 함으로써만 자신이 ‘소망하는’ 하나님 나라가 자신의 일을 통해 어느 정도 우리 가운데 실현되고 있음을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엘룰은 현대 기술 사회와 관련하여 예언자적 경고의 메시지를 던졌지만, 기술과 관련된 그의 삼부작은 각각 1954년, 1977년, 1988년에 출간되었다. 그 이후 오늘날까지 현대 기술은 그 당시 상상도 하지 못할 단계에 이르게 되었다. 그럼에도 엘룰의 기술 사상을 연구하는 것이 의미가 있으려면, 오늘날 우리의 상황에서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그의 통찰력 있는 분석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하지만 2020년 현재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실상은 그와 정반대인 것처럼 보인다. 따라서 이제부터라도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현대 기술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기술적 지배에 어떻게 저항할지에 대해, 또한 기술 사회의 온갖 우상과 신화를 어떻게 무너뜨릴지에 대해 진지하게 성찰하면서 그 방법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자크 엘룰의 기술 사상과 관련된 국내의 선행 연구로는 “자크 엘룰의 ‘자율적’ 기술 개념”(강성화, 2001), 『자크 엘룰의 기술 철학 연구』(강성화, 2002), 『자크 엘룰의 기술 문명 비판 : 사회학적 불가능성과 신학적 가능성』(임재원, 2005), “자크 엘룰의 기술 사상과 그 사상에 대한 평가”(이상민, 2019) 등이 있다. 자크 엘룰의 기술 사상에 대한 연구가 아직 충분히 되어 있지 않은 국내 상황에서 그 연구들이 나름대로의 충분한 의의와 가치를 지니고 있다. 하지만 그 연구들은 엘룰의 기술 사상에서의 핵심 중

하나에 해당하는 신성화된 기술의 문제에 대해서는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의의는 현대 사회에서 신성화된 기술의 문제점을 부각시키면서 그런 기술과 관련하여 인간에게 신화적 존재가 되어 나타나는 여러 요인을 분석하고 나서 그 해결책을 제시한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드러나는 한계점도 이렇게 지적할 수 있다. 즉, 신화와 관련된 기존의 개념과 관점에서 볼 때, 엘뤼이 현대 기술 사회에 새롭게 등장하는 신화로서 제시하며 분석하는 역사와 과학을 비롯하여 국가, 정치, 돈, 성장과 진보, 스포츠, 광고와 대중매체, 정보처리기술 같은 요인들을 과연 신화로 과연 규정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런 문제를 중심으로 논의될 수 있는 다양한 견해와 쟁점이 있음에도 그 견해나 쟁점을 제대로 제시하거나 논의하지 못함으로써 그 문제를 제대로 진단하지도 파악하지도 못했다는 것이 본 연구의 한계점이라고 할 수 있다. 향후 다른 연구에서 그 문제와 관련된 견해와 쟁점이 본격적으로 논의됨으로써 본 연구의 한계점을 보강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해본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

## 참 고 문 헌

(\*참고 문헌에 자크 엘룰의 저서의 한국어 번역본이 참고용으로 제시되어 있으나, 본고에서의 엘룰 관련 내용은 참고 문헌에 제시된 프랑스어 원전에서 인용하여 작성한 것임을 밝혀 둔다)

- Ellul, J. (1963). *Fausse présence au monde moderne*, Paris: Les Bergers et Les Mages.
- \_\_\_\_\_. (1967). *Histoire de la propagande*, Paris: Presses Universitaires de France, collection «Que Sais-je?».
- \_\_\_\_\_. (1969). *Autopsie de la révolution*, Paris: Calmann-Lévy.
- \_\_\_\_\_. (1972). *De la Révolution aux Révoltes*, Paris: Calmann-Lévy.
- \_\_\_\_\_. (1979). *L'Homme et l'argent*, Paris: Presses Bibliques Universitaires.
- \_\_\_\_\_. (1981). *La parole humiliée*, Paris: Éditions du Seuil.
- \_\_\_\_\_. (1982). *Changer de Révolution*, L'Inéluctable prolétariat, Paris: Éditions du Seuil.
- \_\_\_\_\_. (1987). *Ce que je crois*, Paris: Grasset & Fasquelle.
- \_\_\_\_\_. (1988a). "Préface" in : André Vitalis, *Informatique, pouvoir et libertés*, Paris: Economica, v -xi.
- \_\_\_\_\_. (1988b). *Présence au monde moderne*, Paris: Presses Bibliques Universitaires.
- \_\_\_\_\_. (2003). *Les Nouveaux Possédés*, Paris: Mille et une nuits.
- \_\_\_\_\_. (2004a). *Le bluff technologique*, Paris: Hachette.
- \_\_\_\_\_. (2004b). *L'espérance oubliée*, Paris: La Table Ronde.
- \_\_\_\_\_. (2004c). *L'Illusion politique*, Paris: La Table Ronde.
- \_\_\_\_\_. (2004d). *Le système technicien*, Paris: Le Cherche Midi.
- \_\_\_\_\_. (2008a). *Propagandes*, Paris: Armand Colin, Éditions Economica.
- \_\_\_\_\_. (2008b). *La Technique ou l'Enjeu du siècle*, Paris: Economica.
- 강성화 (2001). 자크 엘룰의 '자율적' 기술 개념. *哲學研究*, Vol. 54, 273-293.
- [Kang S. H. (2001). Jacques Ellul's Concept of Autonomous Technology. *Philosophical Research*, Vol. 54, 273-293.]



강성화 (2002). **자크 엘뤼의 기술철학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Kang S. H. (2001). A study on Jacques Ellul's philosophy of technology. Doctoral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김치수 역. (2015). **개인과 역사와 하나님**, Ellul, J.(1987). Ce que je crois. 대전 : 대장간.

[Kim C. S. (2015). *Individual, History and God*. Daejeon, Daejanggan. Trans. Ellul, J.(1987). Ce que je crois. Paris: Grasset & Fasquelle]

박동열 역. (2010).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 Ellul, J.(1988). Présence au monde moderne. 대전 : 대장간.

[Park D. Y. (2010). *Christian in the World*. Daejeon, Daejanggan. Trans. Ellul, J.(1988). Présence au monde moderne. Paris: Presses Bibliques Universitaires]

박동열·이상민 역. (2014). **굴욕당한 말**, Ellul, J.(1981). La parole humiliée. 대전 : 대장간.

[Park D. Y.·Lee S. M. (2014). *Humiliation of the Word*. Daejeon, Daejanggan. Trans. Ellul, J.(1981). La parole humiliée. Paris: Éditions du Seuil]

송병옥. (1995). 과학과 신화 : 바이젠거의 '과학의 한계'를 중심으로. **인문과학논총**. Vol. 27, 141-162.

[Song B. O. (1995). Science and Myth : Around 'the Limit of Science' of Weizsackers. The Journal of Humanities, Vol. 27, 141-162]

안성현 역. (2019). **혁명에서 반란으로**, Ellul, J.(2011). De la Révolution aux Révoltes. 대전 : 대장간.

[Ahn. S. H. (2019). *From the Revolution to the Revolt*. Daejeon, Daejanggan. Trans. Ellul, J.(2011). De la Révolution aux Révoltes. Paris: La Table Ronde]

양명수 역. (2019). **하나님이나 돈이나**, Ellul, J.(1979). L'Homme et l'argent. 대전 : 대장간.

[Yang M. S. (2019). *God or Money*. Daejeon, Daejanggan. Trans. Ellul, J.(1979). L'Homme et l'argent. Paris: Presses Bibliques Universitaires]

이상민 역. (2009). **잊혀진 소망**, Ellul, J.(2004). L'espérance oubliée. 대전 : 대장간.

[Lee S. M. (2009). *Forgotten Hope*. Daejeon, Daejanggan. Trans. Ellul, J.(2004). D. Paris: La Table Ronde]

이상민 역. (2013). **기술 체계**, Ellul, J.(2004). Le système technicien. 대전 : 대장간.

[Lee S. M. (2013). *Tecnological System*. Daejeon, Daejanggan. Trans. Ellul, J.(2004). *Le système technicien*. Paris: Le Cherche Midi]

이상민 (2019). 자크 엘룰의 기술 사상과 그 사상에 대한 평가. **신앙과 학문**, Vol.24 No. 1, 5-58.

[Lee S. M. (2019). Technological Thought of Jacques Ellul and Reflections on This Thought. *Faith & Scholarship*, Vol.24 No. 1, 5-58.]

임재원 (2005). **자크 엘룰의 기술 문명 비판 : 사회학적 불가능성과 신학적 가능성**.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Leem J. W. (2005). *A Study on Jacques Ellul's Critical Thought of Technical Civilization : Sociological Impossibility and Theological Possibility*. Masters Disser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철학사전편찬위원회 (2009). **철학사전**, 서울: 중원문화.

[The Compilation Committee of Philosophy encyclopedia (2009), *Philosophy encyclopedia*. Seoul: Joongwonmunhwa.]

하태환 역. (2011). **정치적 착각**, Ellul, J.(2004). *L'Illusion politique*. 대전 : 대장간.

[Ha T. W. (2011). *Political Illusion*. Daejeon, Daejanggan. Trans. Ellul, J.(2004). *L'Illusion politique*. Paris: La Table Ronde]

하태환 역. (2012a). **인간을 위한 혁명**, Ellul, J.(1982). *Changer de Révolution, L'Inéluctable prolétariat*. 대전 : 대장간.

[Ha T. H. (2012a). *Revolution for the Man*. Daejeon, Daejanggan. Trans. Ellul, J.(1982). *Changer de Révolution, L'Inéluctable prolétariat*. Paris: Éditions du Seuil]

하태환 역. (2012b). **선전**, Ellul, J.(1990). *Propagandes*. 대전 : 대장간.

[Ha T. H. (2012b). *Propaganda*. Daejeon, Daejanggan. Trans. Ellul, J.(1990). *Propagandes*. Paris: Éditions Economica]

황종대 역. (2013). **혁명의 해부**, Ellul, J.(2011). *Autopsie de la révolution*. 대전 : 대장간.

[Hwang J. D. (2013). *Dissertation of the Revolution*. Daejeon, Daejanggan. Trans. Ellul, J.(2008). *Autopsie de la révolution*. Paris: La Table Ronde]

Aron, R. (1986). *Dix-huit leçons sur la société industrielle*, Paris: Folio.

Barrientos-Parra, J. (2014), "De quelques aspects du progrès technique au début du XXI e siècle" in *Comment peut-on (encore) être ellunien au 21e siècle?*(2014), Paris: La Table Ronde, pp.150-163.

- Baudrillard, J. (1970). *La société de consommation, ses mythes, ses structures*. Paris: Édition Denoël.
- Bell, D. (1974). *Coming of Post-industrial Society: Venture in Social Forecasting*, Portsmouth: Heinemann Educ.
- Dubord, G. (1967). *La société du spectacle*, Paris: Buchet/Chastel.
- Gill, D. W. (2014). “L’Importance durable de Jacques Ellul pour l’éthique des affaires” in *Comment peut-on (encore) être ellunien au 21e siècle?*(2014), Paris: La Table Ronde, pp. 113-132.
- Lefebvre, H. (1975). *Le temps des méprises*, Paris: Stock.
- McLuhan, M. (1964). *Understanding Media: The Extensions of Man*, New York: McGraw Hill.
- Porquet, J.-L. (2004), “Préface” in : Jacques Ellul, *Le bluff technologique*, Paris: Hachette, pp. 5-16.
- Touraine, A. (1969). *La société post-industrielle. Naissance d’une société*, Paris: Édition Denoël.
- “신화”, 한국민속대백과사전, Retrieved from <https://folkency.nfm.go.kr/kr/topic/detail/5377> (2020. 11. 10.)

# 기술 사회에서의 새로운 신화들에 대한 분석 -자크 엘릴의 기술 사상을 중심으로 \*

An Analysis on the New Mythologies in the Technological Society  
- Around the Technological Thought of Jacques Ellul

이상민 (서울국제고등학교)

## ABSTRACT

자크 엘릴은 현대 기술 사회에서 등장하는 새로운 신화들, 특히 기술과 관련된 신화들에 대해 비판한다. 왜냐하면 오늘날 기술은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자율적인 과정이며 신성화된 세계이기 때문이다. 엘릴에 따르면, 현대 기술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신화는 역사, 과학, 국가, 정치, 돈, 성장, 진보, 스포츠, 광고, 대중매체, 정보처리기술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방된 그리스도인은 인간을 소외시키는 그런 신화들을 우상처럼 숭배하기를 그만두어야 한다. 엘릴은 현대 기술 사회의 그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자 그리스도인의 특별한 행위로서 ‘자각’을 제시한다. 그런데, ‘자각’에 필수적인 요소는 현대의 신화들을 파괴하는 것이다. 그런 ‘자각’으로 두 가지 결과가 나온다. 첫째, 하나님 역사의 흐름에 개입한 성육신이라는 ‘사건’을 세상에서 재인식하고 그 의미를 재발견하는 것이다. 성육신이라는 ‘사건’은 현대의 신화들과 반대되며, 오직 거기로부터 그리스도인은 생각과 삶에 반드시 필요한 영역을 재발견할 수 있다. 둘째, ‘신성불가침의 것’의 경계를 재발견하는 것이다. ‘지적 탐구’는 자체의 역량 너머에 있는 ‘신성불가침의 것’을 기계적 수단을 통해 예측시키고 부정할 수 있으며 짓밟을 수 있기에 ‘신성불가침의 것’ 너머로 가지 말아야 한다.

주제어: 자크 엘릴, 기술 사상, 기술 사회, 새로운 신화